

속 기록

- 회 의 명 : 제40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8. 29.(금) 14:00 ~ 16:50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 불참위원 : 배은주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40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 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을 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총괄팀 김한수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6년 국제교류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등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5건을 상정하고, 회의 종료 후에 지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위원회 자료 요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개최한 제402차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어서 4건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오늘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그리고 기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놓쳤거든요. 뭘 논의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병국 위원장 :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노조의 의견도 있었고 위원회 자료요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기타 안건으로?

정병국 위원장 : 기타 안건이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효력이?

정병국 위원장 : 거기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논의를 한번 해 본다는 말씀이지요?

정병국 위원장 : 예. 회의가 끝나고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이고, 제가 지난 7월 전체회의 말미에. 그러니까 402차 전체회의 말미에 노조 비대위원이신 조강주 위원님께서 3쪽짜리 문건을 저한테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서 오류도 있고요.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노사관계의 사측은 위원장만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지 않고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차분히 보려고 우리 조강주 위원님께 지난주에 이메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48호 2026년 국제교류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6년 국제교류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공모대상 사업이 4개입니다. 장표에 보시면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아르코 사업연계 해외진출지원,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지원입니다.

예산은 총 18억 원입니다.

지원기간은 단년 사업의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다년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마다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진행하려고 하는 공모 총예산은 18억 원인데요. 이번 9월에 추진할 공모예산은 9억 원이고, 별도공모를 9억 원으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 사업이 올해 신규로 3억 원이 편

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국회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어제 10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정부안에 반영될 예정이라 미처 이번 공모에는 담지 못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다듬어서 다시 별도공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사업이 증액이 돼서 별도공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선정작가를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지정)에 신청할시 가산점 평균평점 1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매개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단년 사업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년 사업으로 확장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의기준은 심의기준 세분화 및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신설해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파트너들 간에 사전조율이나 협업 구조 설계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공고를 올리고 10월 21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에 심의를 해서 12월 초에 발표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사업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 자체가 예술가의 창작작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즘같이 전통예술의 경우 세계화나 산업화를 지향하는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전통예술 쪽에서도 이런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교류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빠진 이유가 뭔지? 혹은 매칭할 수 있는 협력기관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빠졌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아니요.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외에서 진행하는 해외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레지던시 형식이다 보니 결국은 시각예술이나 문학 쪽이 있고 공연예술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사업 자체가 정주형.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국제사업을 진행하되 레지던시라는 정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장르마다 적용되는 사업의 품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시각의 레지던시 형태의 사업도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기존에 아웃바운드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아트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을 별도로 받을 예정이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차제에는 이번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아까 “문체부에서 좋다고 그랬다.” “예산을 더

준다” 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 공고문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고 얼마나 장래성이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이 사업이 그 전년도에는 이랬는데 1년을 해 보니까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수치로도 좋고 아니면 감성적인 언어여도 좋으니 성과에 대한 자료가 같이 첨부되면 저희가 사업을 더 늘리고 다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사업이 올해 신설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단체의 경우에는 2개년 사업 지원이라서 아직 성과측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국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정 지원으로 사업이 재편되면서 모니터링이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K-컬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으면서 해외의 문화예술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저 나름대로도 해외에 나가서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을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와서 예술인들이 한국 예술인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바운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흐름상 같이 맞아떨어져서 증액된 측면이 있어서 당장 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의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 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는 적절하게 쓰이지 못 했거나 성과에 대한 계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현장에서는 “다 외국사람들에게 퍼준다.” 이런 식의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니 차체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호혜의 원칙에서 혹은 어느 정도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하면 실은 돈을 더 많이 써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설정하고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문모 위원 : 8쪽을 보시면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심의기준으로 심의기준 표준화 및 세부 항목별 배점을 신설해서 예전에 비해서 세부 항목 안에 비중을 놓은 것은 진일보한 경우라서 참 좋은데요. 공모사업 사업 제안서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표준화가 어떤 뜻인지를 우선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이것은 오타인데요. 죄송합니다. 세분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문모 위원 : 그러니까 제안서를 쓸 때 항목별로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재단에 넣을 때도 내용 자체를 집어넣는 게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짚 분석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면, 글을 쓴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분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을 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평가내용 자체를, 항목들을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궁금해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에 늦춰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시공모를 앞당겨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올해 18억 원에다 10억 원이 돼서 29억 원으로 내년도에 하는 건가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내년 예산은 총 18억 원이고요. 이번 9월 4일에 올라가는 공모는 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9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성기숙 위원 :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이 되었을까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게 어디에도 없어서요. 제가 사실 발언을 많이 한다고 질책을 많이 받아서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래서 쪽수를 제가 짚으면서 속도감 있게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7쪽에 사업개요에서,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요. 표에 ‘내내내역사 업명’ 이라고 해서 ‘내내내역’ 의 뜻이 뭔지? 한꺼번에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년하고 단년이 있는데 다년인 경우 자료를 쭉 보니까 연속적인 기관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수혜자는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러면 다년인 경우 전년도의 성과나 실적의 유무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결과보고서 내지, 국제 같은 경우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8쪽으로 가서 보면 ‘아르코문화펠로우십 선정작가 해외레지던시 참가지원’ 여기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균 가산점을 1점 부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장르의 해외교류 사업이 진행되는 데 왜 문학 분야의 ‘아르코문화작가펠로우십’ 만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그리고 부여될 때도 성과치를 반영해서 1점을 부여하는 것인지 기계적으로 전체를 부여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매개강화라고 해서 ‘기획자의 해외 예술계 주요 관계자들 간에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현장의 예술인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장르별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획자나 국제교류를 하는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기존에 네트워크가 없는 일반예술가들이 정말 국제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특히 청년들. 그래서 이런 인맥 찾기랄까 네트워크의 독점. 이게 하나의 정보나 네트워크를 갖는 것도 권위이기도 하지만 권력일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예위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라서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진입장벽을 좀 넓게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의 표에 보면 비지정사업인 경우 해당 레지던시가 직접 발급한 공식 초청장 또는 참가 허가서가 없는 경우는 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입장벽을 굉장히 닫아놓는 제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수요자들을 조금 넓힌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초청장 내지는 허가서, 물론 심의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심의에서도 예를 들어 “대관이 확정되었느냐?” 를 보듯이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진입장벽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무용에 ‘살리하라 아트센터’ 인도네시아 해외출장 건으로 논의가 되고 제가 질문도 여러 번 드렸던 사건이고요. 또 ‘오스트리아 댄스웍’ 등 무용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서승미 위원님 전통예술분야에 대해 미비한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장르별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로 해 보지는 않았습지만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시각예술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문학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공연예술. 특히 무용하고 전통예술은 참여 내지는 건수가 저조하거든요. 그

래서 이런 것은 장르 안배도 균형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용의 경우 왜 ‘인도네시아 살리하라 아트센터’ 같은 곳은 무용가 1인으로 해 왔는데 ‘오스트리아 댄스웍’ 같은 경우는 2명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인도네시아는 청년이라고 해서 35세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같은 무용인데 여기는 3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연령이나 참여인원수의 편차가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시각예술로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특화되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극지연구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 사업’ 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19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극지연구소에서 아라온호 승선. 배에 타서 창조적 영감을 얻는 거잖아요. 굉장히 특화돼서 좋은 거고 호기심도 자극하고요. 그러면 “왜 시각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창조적 영감은 시각만이 아니라 전통, 음악, 연극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에게 열어놓으면 새로운 창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장르를 오픈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또 12쪽을 보면 지원규모가 비지정, 지정으로 해서 최대가 1,200만 원이고 비지정인 경우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 신진예술가지원이 20년 전에, 류재수 본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신진예술가지원이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1,000만 원인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이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알다시피 해외협력기관의 소재가 어딘가에 따라서 체류비가 달라집니다. 영미권, 유럽, 아시아권, 남미, 아프리카 등 체류비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정교하게 지원금에 편차를 뒀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활동 내역을 알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장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요건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전담심의제로 A그룹, B그룹을 다 심사해 봤는데 이 지원심의를 하면서 판단의 증거가 되는 게, 이 단체 혹은 예술가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권장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요건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10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쨌든 기록을 해서 답변을 하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다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유병은 팀장님께서 전체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내내역사업’은 저희 행정편의상 ‘내내내역사업’이라고 들어가서 예산의 편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용어가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술창작지원의 세부사업. 그 아래에 있는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가 ‘내역사업’ 그 아래에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 ‘내내내역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상 ‘내내내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하위개념?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맞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두 번째 다년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년사업은 당연히 2개년으로 지정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11월 말 정도에 별도의 인터뷰 심의를 통해서 올해 선정된 2025년, 2026년 다년사업이면 2025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주시고 그때 예산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부터 아르코 내부에 있는 사업들과 국제사업과의 연계성, 후속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세르반티노와 베니스비엔날레가 올해 시작되었고요. 내년에는 문학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분야도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고 장르마다 편차가 있고 국제사업에서 국내사업과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구요. 혹시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다가 “이런 사업은 국제사업과 연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매개 강화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제협업의 기획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안무가나 PD가 아비뇽 페스티벌도 가고 엑스포도 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활동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목적 가지고 연간 아니면 2년간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선정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서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할 때 그런 것을 안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지정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경우 초청장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떠한 레지던시 기관에서 누군가를 초청해야지만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청장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해외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장르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요. 더 잘 아시겠지만 공연예술은 생각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잘 없고 많은 경우 워크숍이나 축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1주나 2주, 한 달을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레지던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레지던시 사업들을 발굴할 때, 파트너 발굴을 할 때 공연에 중점을 두지만 이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사업 안에서 다양한 레지던시 형태들을 실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을 별도로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댄스웍은 왜 2명이고 살리하라 아트센터는 왜 1명이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해외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 측이 원하는 니즈도 있지만 현지의 주관처나 협력파트너가 원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웍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모여서 일주일간 50명의 전세계 안무가들이 와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형태고요. 그쪽에서 “한국 사람은 최대 2명까지 T/O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MOU가 체결되어 진행한 형태였고요. 살리하라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2명은 안 되고 1명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해서 지원대상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독자적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온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각에서 시작되었는데 아마 시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각화되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예전부터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통 다녀오시면 사진이나 거기에서 얼음 등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 작가뿐만 아니라 당연히 무용가나 연출가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가 워낙 협소하고 여기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7페이지에 있는 지원규모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술가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만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지정형 레지던시 22개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로 프로그램이나 말씀하신 현지 체재를 하는데 있어서 현지 체재비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제출 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지원신청서에 다 담겨 와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만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성기숙 위원 :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듣고 싶은데요. 아까 질문 중에 12쪽의 지원규모. 이게 너무 적어요. 사실은 체류비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한 작가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등을 간소화 시키고 예술가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빙이 가장 쉬운 항공료 등만 민정보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예산은 저희가 직접 현지 파트너기관에 해외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는 방식도 있고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 예산집행 방식이 다양하다는 말씀이시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역별 구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행정간소화 내지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라고 하는데 국제교류에도 자부담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면 유연하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그것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기획교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여기 목적에는 “기획 및 매개역량 강화를 위한 매개자 지원”, “새로운 국제적 담론 발굴 및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크게 2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술가라는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술가끼리 만나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국제사업인 경우에는 보통 PD들끼리 먼저 만나거나 아니면 큐레이터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국제공동제작이나 전시, 공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A라는 큐레이터가 비엔날레에 가는 경비.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다른 국가의 다양한 큐레이터들을 만나고 동향을 파악하며 내가 세팅하는 예술가들을 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활동비 그러니까 ‘여비성’ 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매개자가 당연히 기획자나 PD, 큐레이터도 있지만 비평하시는 분들

도 있고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연극 평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해외에 연극총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도 가실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이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에 대해 1년에 2번씩 성과공유회처럼 해서 줌이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권역에 어떤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들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왜냐하면 이게 올해 신설이 되어서요.

정갑영 위원 : 올해?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올해 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문체부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이 만들어지고 문체부 산하에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는 유관기관 간 업무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KOFICE 같은 경우에는 수교성, 계기성, 전시, 투어링 등을 다 가져가게 되었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유통을 책임지게 되었고요.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는 공동 창·제작과 만들어지기 전에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담론을 확산하는 역할로 업무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구조가 올해 다시 만들어졌고 말씀해 주신 성과들은 올해 말에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 해서 얘기를 듣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표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 선정할 때도, 지금 여기 선정방식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과 세부 내용을 보면 다른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특수하고 다르다면 여기에 맞는 세부 항목과 지표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결과물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헛된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왕치선 위원님과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얘기하려다가 빠뜨렸는데요. 성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심의 기준에서 보면 국제교류협력 기반 강화 및 확장은 사실 거의 기대효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내용이 있고 나중에 성과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질적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표현을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수려하게 사진을 찍었느냐가 아마도 평가결과 보고서의 중요한 결정이 될 텐데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제가 늘 주장을 하지만 정량화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제교류 생태계 발전에서 해당 국가 혹은 국제 예술계 내에서 “한국 예술의 인지도 및 관심도 제고”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인지도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을까? 가령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보면 많잖아요. IFACCA 같은 경우에도 120개 국가에서 몇 명이 왔다. 이게 정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력기관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해외 발표 이력을 그분이 얼마나 했는지? 기획된 공동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게 필수적으로 못 들어간다면 가령 예시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볼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말을 화려하게 쓰는 것에 따라서 성과가..... 비교도 할 수가 없

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평가의 기준, 평가내용이 장르별로 동일할까? 아마도 미술과 문학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요. 여기에 보면 문학 장르에서 기존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장르별로 평가하는 기준에서 무리하다 싶은 게 없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글로벌교류, 글로벌협력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업의 설계가 좀 허술해요.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설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어떤 공모사업이든 결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창·제작지원 특히 창·제작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내년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창·제작지원에 그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면 창·제작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결과물에 대해서 지원해준 기관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이런 설계를 놓고 보면 이것은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4쪽에도 나와 있지만 멕시코 세르반티노 국제축제라고 하는 축제는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축제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축제에 참가한 예술가들의 명단이 쪽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축제에 우리 예술가가 가서, 단체가 가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제작에만 그치도록 업무가 정리되었고요. 당연히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발표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못 하도록 문체부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KOFICE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도 처음에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당연히 발표되기까지가 하나의 싸이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체부에서 주어진 정책기조 아래에서 그게 분절된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어설플까?”,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구조일까?”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들여다 봐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좀 확장해 주신다면 저도 업무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예술가들한테도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 구조인데 너무 단절되고 분절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외국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부분은 PAMS로 가고 이 부분은 위원회와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KOFICE의 어느 팀과 할 수 있다.” 제가 메일 10통 중에서 5통의 이메일은 그런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유병은 팀장님 말씀에 보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문모 위원님과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기획자나 문화일반으로 해외레지던시에 참가하는 경우는 강연, 토론, 워크숍, 스터디 등 프로그램 참여거든요. 그러면 결과치에 대해서 전문저널이든 문예위에서 나오는 매체든 그게 피력돼서 기록으로 남아서 어떤 의의가 있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예술현장과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속 결과물에 대한 효용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8쪽을 보면 역대 참가자가 2013년부터 2025년. 그러니까 13년간 쪽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개최지와 수혜를 받은 참가자. 그러니까 신진 기획자였으니까 지금은 이분들이 기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획자들이 국제교류에 대한 안목과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전문인력양성 취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문예위가 지원하는 국제 프로그램 수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것도 10년이 넘는 것은 결과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고 문화 선진국으로 들어섰고 우리 위원장님도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포럼이나 컨퍼런스에 초대되어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분들을 모셔서 전부 비용을 감당하는 쪽인데요. 우리는 진출시키는 것도 우리의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교류의 실체는 뭐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멕시코 세르반티노 국제축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축제고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현대무용의 대표주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내고 있고 문예위에서 지원받은 작품이 멕시코 세르반티노에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실력자들이 가서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조금 덧붙이자면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르반티노는 스페니쉬를 쓰는 축제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나 아비뇽과 견줄 수 있는 축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왜 추진해야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가서 지원금으로 공연을 1회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멕시코를 투어하면서 10개의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것은 방금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업이 아니라 현지에서 예산을 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간 해외레지던시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작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IWP 같은 경우도 이번 문학주간 때 그쪽 디렉터가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셨던 문학 작가들을 모시고 토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IWP에 참여하시고 싶은 젊은 작가들이 오셔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달 전에도 세르반티노 축제 감독님이 오셨을 때도 크게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 시장과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현장의 예술가들을 모시고 토크를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했던 국제사업의 성과공유회를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간 어떤 성과들이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진 위원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측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그저 자유롭게 한번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라고 보내주시면 안 될까? 꼭 성과를 내라고 해야 할까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것이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작업하시는데 분명히 녹아 들어갈 터이니 한번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돌아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유 팀장은 그동안 국제레지던시 사업을 하면서 참여했던 예술인들의 현황.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도 우리 레지던시 사업으로 갔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은 참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세르반티노 축제는 중남미권 영역에서 순수예술 축제로는 제일 권위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 팀장이 얘기했던 대로 단순하게 축제에 한번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선발된 팀은 전국을 투어하면서 한국예술을 알리게 되고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전담해서, 거기에는 멕시코만의 축제가 아니라 중남미 전역의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에 있는 공연예술인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멕시코문화원에서 자체 인력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 직원을 단기라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개월짜리 단기프로그램으로 내부 선발을 해서 1명이 9월부터 출장을 거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세르반티노 축제가 중남미 권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짧게 보태면, 우리 무용 분야는 여기에 굉장히 성과가 있는데요. 남미가 스페인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회성 공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유명한 문학작품을 무용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화 상호교류가 되는 측면에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 무용가는, 제가 논의할 수 있는 무용 쪽 포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대통령을 교통정리 해 주고 호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무용단이 갔을 때 현지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담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레지던시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갔을 때도 한-네덜란드 간의 문화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레지던시 사업이었어요. 네덜란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 직접 요구를 했고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그것을 더 강화해라.” 이래서 저희가 강화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네덜란드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대폭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사업이 유야무야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이는 레지던시 사업인데도 발군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한국하고 교류하는 것의 최전선에서의 교류 정점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작가들이 들어오면 한 사람 내보내면 한 사람만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한국의 여러 작가들하고 네트워킹이 되니까 더 시너지가 난다고 해서 인바운드 사업을 강화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게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도 강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인바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이 안건은 통과시키고요. 실행을 하기 이전에 보완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해서 처음 시행하고 중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2025년 신규 사업이었던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와 기업이 후원 결연을 하는 경우에 사회적 시상을 통해서 문

화예술 후원 문화를 확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설립한 문화예술재단 즉 지역문화재단에 한정되어 있고요. 지원내용은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을 추진한 후에 기업 후원액에 비례한 단체별 시상금과 후원매개를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기업 후원이 확정된 경우 기업, 지역 그리고 저희 문예진흥기금이 1:1:1 매칭 기준에 따라서 시상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주요 경과 및 일정은 5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작년 10월 정도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사업이 기업 결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 접수기간은 3개월 이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지원신청이 부진할 것이라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역설명회도 하고 지역재단 대표님들의 행사에도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래 접수 결과를 보시면 총 37억의 예산 중에서 38억 9,200만 원이 신청돼서 지원심사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8월 19일에 했고요. 예술확산소위원회에 지난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심사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사업이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재단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의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로 적격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지원결정 현황을 보시면 결격을 제외한 26건 중에 37억 원의 예산이었고 지원결정액은 3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단별로 보시면 수도권에서는 총 10건이 결정되어서 선정비율은 38% 그리고 비수도권은 61%의 선정비율인데요. 지원금액은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지원금액에서는 수도권이 22% 그리고 비수도권이 77%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총 참여 예술가(단체)를 보시면 114개의 예술가(단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매칭 시상금을 받게 되었고요. 참여 기업은 223개 그리고 후원 결연건수는 227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처음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총 7억 3,000만 원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19억 8,700만 원 그리고 인구감소 소멸지역에서도 예상외로 5억 4,3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32억 6,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결격으로는 이게 지역재단 대상인데 민간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한 1건 그리고 기업후원이 결렬된 신청포기 1건이 제외되었습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후속 조치로는 지원금 교부를 하게 되었고요. 잔여예산이 3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은 우수사례공모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한지총과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기업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무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의무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소멸지역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원사업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접수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심사 결정내역서 총 26개 지역문화재단의 명단과 지원 예정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는 심사 총평이므로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잔여예산 3억 원에 대해서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총과 협력해서 이러한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려

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인 성과가 뛰어난 사례 그리고 기업후원 결연을 매개한 사례 등 총 14건.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의 절반 이상을 시상하려고 하고요. 단,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고 적합한 사례가 없을 때는 시상 규모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시상금 사용 가능 항목은 지역문화재단에서 기업문화예술 매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심사기준은 협력의 우수성, 파급효과, 지역의 기여도, 혁신 등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우수사례가 발굴돼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특히 이 부분이 기업들에게 잘 알려져서 기업들도 앞으로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서승미 위원 : 이게 저희 첫 번째 사업인 것이죠? 설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사업내용을 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일단 심사결과 자체도 28건 중에 결격건수 2건 외에는 모두 선정된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내기만 하면 다 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예컨대 원래 기획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역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지역에 약간 더 할당을 주는 것 같은데요. 뽐힌 사항을 보면 서울문화재단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의 목적은 기업 후원 활성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재단들이 그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만 받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정부에서도 차단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유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재단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후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하고 함께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 있어서 그 조건만 맞추면, 그러니까 지역문화재단들이나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후원기업을 끌어오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아까 같이 개인단체든지 또는 후원을 해 주겠다는 게 결렬되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매칭으로 나눠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업명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명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더 노골적으로 지역후원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야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왜 서울시가 들어갔고 지역하고 똑같으냐?” 그런데 사업 설계를 할 때 매칭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소멸지역은 2고 서울은 1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차등을 두었고 서울을 처음에는 빼려고 했다가 서울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정병국 위원장 : 후원이 활성화되지 않아서요.

송시경 사무처장 : 어쨌든 지역에 더 많이 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설계는 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예술과 기업의 동반성장 목적이 있어서 매칭 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환원을 예술지원을 통해서 하는 의미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감면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는 좋다고 보는데요. 106쪽의 결정내역을 쪽 보면 단체들의 사업명. 그러니까 사업명을 쪽 썼기 때문에 세부명이 들어왔으면 기업하고 예술이 매칭 되었을 때 행사의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공모로 나가는 사업명을 써 버려서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104쪽을 보면 행정 결격사유 ‘지원자격 미충족’ 이라고 해서 제외가 된 단체가 있어요. ‘빔케이’ 라고 해서 보니까 사업명이 ‘병원 기획 전시’ 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도 굉장히 의미가 돋보이는 게 아닌가? 예전에 보면 병원콘서트나 병원에서 무용도 합니다. 환자나 가족들의 호응도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담당부서에서..... 아까 서승미 위원님도 궁금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원신청 사업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된 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의 행사들인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지금 행정결격에 있었던 민간단체 같은 경우 민간단체와 기업 양자 간에 결연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메세나협회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서 수년간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확보한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것이어서 지역문화재단만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 114건의 예술단체 참여 내역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사업은 저희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이제승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개월 이상 굉장히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 해볼 것인가?” 노력을 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지방에 있는 문화재단들을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기업을 찾아서 매칭해서 공모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가서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꼭 해 보시라고 독려도 해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소위에서는 굉장히 자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여예산이 3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활용해서 이것을 우수사례 공모전을 하겠다고 재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기업하고 매칭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설계해서 들어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도 잘 설계가 돼서 내년도 사업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할 때 서류심사만 하시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다른 사업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하실 수 있게 설계를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사실 결연 내역의 스토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유되는 측면도 있어서 조금 더 설계를 해 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도 역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성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갑영 위원 : 26개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액수와 상관없이 서울문화재단, 영등포, 강북, 관악, 금천. 그러면 서울 시내의 지역문화재단 4개하고 서울하고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계속 갖고 갈 것인지? 당연히 서울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가져갈 것인지 지역의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이 크네요. 그러니까 광역들이 몇 십억씩 가져가고요.

3억 원인가요? 그다음에 기초들이 그것보다 작은 단위로 가져가는데요. 그냥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지역문화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분문제나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22번과 23번을 보면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그리고 “전주문화재단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그 아래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재단들이 지역 내에 있는 후원 결연을 총괄해서, 취합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건 안에는 결연건수가 최소 1건에서 많게는 20건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요. 서울문화재단은 처음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도 고민이 있었지만 서울지역에 소재한 예술단체들에게는 지원신청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은 받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배정비율이나 지역의무 인정비율에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초자치체 그리고 인구감소 소멸지역에 배네핏을 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갑영 위원 :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문체부 사업에도 있고 대표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같은 데에도 한 쪽지로 기업과 협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가점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 안에 중복된 사업들이 겹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저희가 내용을 바탕으로 교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정갑영 위원님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위원장도 하셨고 저도 평가위원으로 참여도 해 봤는데요.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정할 때 서울은 특별하게 대한민국의 수도고 인구 집중이라서 서울의 20여 개 단위의 구가 있지만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고 광역 같은 경우 각각의 구도 가능하게 해서 대구의 수성구나 영도구 등 선정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라고 보여지기는 한데요. 그런 사례도 참고하셔서 향후에 감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처음하는 사업이고 처음에 이것을 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협의를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전부 다 난색을 표했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공모했다가 응모를 하는 데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이라고 해도 후원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비율을 달리해서 첫해니까 해 보고 호응도나 가능성을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이나 광역재단을 단계적으로 배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제외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했지만 이것을 전부 다 해본 문화재단에서 하는 얘기가 “하니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로 나오게 되면 다른 일반 기초문화재단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서울보다 지역이 기업후원을 끌어내기가 더 쉽습니다. 서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역의 기업들은 문화재단들이 단체장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하면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미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자칫 잘못 접근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에 주저하지 말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적극성을 펼 수 있도록,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향후 활성화가 되면 기업후원활성화를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추진 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차 회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10월에 개천절에서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있고, 지금 현장 업무보고에서도 공모사업 지원신청 일정이 정시공모라는 이유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몇 주 앞서서 조기 공모 접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11페이지 (1)공모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속으로 정부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번에 공모가 진행되는 사업은 총 26개 사업 426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543억 원과 비교해서 줄어든 이유는, 다년 지원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이미 다년지원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 예상 규모가 약 191억 원입니다. 191억 원까지 합산하면 총 618억 원 정도로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시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0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구요. 올해는 지금 국제교류사업은 앞서 의결해 주셨듯이 9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10월 21일에 접수마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창작산실, 창작주체,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같은 주요사업 공모접수는 9월 23일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공모시기와 마찬가지로 9월 23일에 동시에 공모계획안을 개시하지만 문학펠로우십지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수상실적이 지원자격 요건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공모접수가 진행되고요.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장편소설창작지원 그리고 증액된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 대관료지원, 지역예술도약지원 등과 같은 사업은 별도공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안에는 아주 간단하게 사업목적과 예산 정도만 표기해서 예고제 정도로만 개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과 공모개요는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의 총괄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구요.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앞서 8월 14일에 위원님들께 공고문 초안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초안이었기 때문에 이후 사업팀별로 의견수렴 과정과 위원님들과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확정된 버전을 다음 주 중에 한번 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팀에서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저희팀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9월 12일에 서면의결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의결로 진행해야지 9월 23일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접수를 시작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지는 않고 온라인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의결 종료 이후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는 대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늘려서 온라인으로 1대 1 그리고 Q&A를 접수 받아서 Q&A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냥 공고문 텍스트로만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1월 일정을 보시면 10월 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접수되는 경과를 보고 사실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업팀에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다만, 일차적으로 구성안을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마련해도 지원신청 접수결과를 보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한 작업은 11월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1월에 사업팀에서 굉장히 연락을 많이 드릴 예정이기 때

문에 미리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에서 사업추진일정, 사업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서 되도록 12월 말까지 심의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숨가쁘게 일정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3)번 심의운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전담심의제 같은 경우에 창작산실·주체, 문학, 시각, 다원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주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그리고 청년예술가도약지원까지 심의를 전담하는 1개의 그룹과 공연예술창작산실을 전담하는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총 2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전담심의제를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심의 이후 평가모니터링을 운영하다 보니까 1개의 그룹에서 소화해야 되는 사업건수가 많게는 70여건에 이르고 이것을 1개의 그룹에서 소화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실제 평가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적으로 제고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청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하되 예비예술인지원 같은 것도 추가해서 전담심의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의위원 후보단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차 회의 때 위원님들과 논의했듯이 심의위원 후보단 인원이 정말 부족한 분야는 지원심의운영규정 5조에 따라서 후보단 외에서도 위촉 가능한 것으로 적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뒷부분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4)번 국정과제 이행방향 검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국정과제 전체 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해당 국정과제 이행 세부과제를 각각의 부처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체부에서도 여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과제의 설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 관련 사업은 (1)번 자기부담금 폐지가 될 것 같고요. 앞서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산 간소화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워딩 정도만 약간 수정되지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 기관에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보조사업이라는 예산 세목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과거부터 문체부 훈령에 따라서 보조비율은 100%가 될 수는 없고 90% 정도로 하고 10% 정도는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사실 그것은 2016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신규 사업을 따거나 혹은 보조사업 연장평가라는 기재부 관리감독을 받을 때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 지원사업 공모요강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조사업자들에게 요구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본인들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을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에 등록해서 내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의제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2026년도 사업부터라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기재부에서 물었을 때 창작주체사업이나 다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외부적으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환류에 넣어서 후속적으로 다년간 지원을 받을 때 그게 환류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전담심의제 개선안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 2024년도 결산 검토과정에서 저희 기관의 심의제도에 관해서 외부에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결위의 검토과정에서 전담심의제 공정성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고 몇 차례 예결위에 방문을 해서 방문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에 정리한 4가지 사항입니다.

이제 비상임위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할 경우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 전담심의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외부인사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심의관이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게 될 경우 외부인사가 3명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으로 전담심의제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 최소 5인은 확보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의위원의 개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까지 실제 문예기금지원사업 심의제도 안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사무처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9월까지 의결을 통해서 관련 규정 같은 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전담심의위원을 청년지원사업에 하나 더 개설하신다는 건데요. 올해도 전담심의위원님들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예산문제가 얘기되었던 것 같은데 1개 팀을 더 구성할 만큼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건지가 궁금합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안 그래도 예산문제가 심의를 앞두고 사업팀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현황을 다음 주까지 파악한 다음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심의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이건 공급해서 묻는 건데요.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만 하는 것 아닌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원래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이 나오는데 그 외 제도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더러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는 것은 그 과정까지 봐야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때도 전반으로 봐요. 그래서 이 결산이나 심의를 할 때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정책질의를 해요.

정갑영 위원 :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에서 자그마한 제도인데요. 그것을 지적한다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게 아니고요. 이 전담심의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특히 지금 여당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결산까지 간 것이죠.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언급돼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무처에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강도 높게 개선 이행요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전담심의제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어떤 논리와 근거로 해명하거나 설명을 드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문체위 상임위원들께서 이런 점을 질문해 주셨고 개선사항을 요청 받았다.” 이런 것을 공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일체 모르고 오늘 회의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 문예위 사무처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문예위 사무처는 비상임위원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비상임위원이, 특히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문예위 전체예산도 이것에 영향권에 있다고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비상임위원들과 공유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요구하신 전문위원이 혹시 누구인지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정병국 위원장 : 얘기하세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한 분이시고 ○○○ 전문위원이십니다.

성기숙 위원 : 왜냐하면 아까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한민국 1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문예위 같은 경우 특히 순수예술 지원기관인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이지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2005년에 민간자율로 전환되면서 참여, 분권, 자율로 해서 민간자율로 비상임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띄고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공개검증을 통해서 이 자리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자율인데 언급하신 주요 내용 4가지는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과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비상임위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 전문위원님이 오해라든지 사실과 다른 거나 곡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부 여당의 문체위 상임위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전담심의제 진통이 있었죠. 그리고 국감 때도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아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심의제에 대한 정부 여당이나 국회 쪽의 기조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상임위원들한테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처에서 대응하고 오늘에서야 회의자료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결산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 지적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예결위 전문위원은 현장에서 우리 문예진흥기금 전담심의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트랙으로 상임위나 여러 트랙에서 얘기를 들으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가 많은 논의와 우려가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예기금 심사라는 게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소명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산 보고서에는 담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명성을 갖추도록, 공정성을 갖추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숙 위원 : 최종 예산결산 보고 자료집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류재수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강력한 요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상임위원이 직접 심의에 참여할 경우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제한하고 비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한다.” 2번에 “기준과 같이 외부인사를 최소 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세 번째는 “전담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 네 번째는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를 공개하라” 이런 네 가지인데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들의 직무 활동이 되어 있는 데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께서..... 지금 보면 네 가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것은 위원회 내부에서 민간자율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외부인사 5인 이상”, “권한축소” 절차상 내용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명시적으로 요구를 강력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민간자율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일단은 아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를 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은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서 예산결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제도개선까지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나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보고서를 쓰면 문제제기를 한 보고서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요. 입법조사관들이 전부 다 나가서 단체들도 만나고 해당 예술인들도 만났겠죠. 만나서 여론수렴을 해서 “뭐가 문제냐?” 라는 부분들로 해서 보고서를 쓸 때 위원들에게 “현장의 의견은 무엇이고 이런 사항들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라고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1차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할 것이니까 직접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관여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도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도 다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두려워하는 게 그 이유인 것인데요.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변해서 대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된 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전체적으로 다루는 게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초안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지적하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논의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다음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우리의 예산이 통과되는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좀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과정에서 우리가 대처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 논란으로 해결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따로 소위를 만들 것인지? TF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각자 의견을 주셔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인지를 할 테니까요.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심의제도개선TF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서 결국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돌리고 그렇게 해서 9월 전체회의

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끼리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었고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꾸리는 게 좋은데요. 내부위원은 모두 배제하고 외부의 시각에서 심의제도를 객관적으로 보고 득실을 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의견이 있는 분들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가 되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래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돌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또 추가해서 어느 정도 좁힌 안을 가지고 9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저도 추후 의견을 내더라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전담심의제도에 대한 문제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상임위원님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 시 개선하라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해서 받은 것은, 처음에는 전담심의 이 자체가 유인촌 장관이 오 시자마자 책임심의제도를 들고 나오게 되니까 “제2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유인촌 장관이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제목도 다르듯이 현장무보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서 모니터를,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책임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현장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전담심의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장관도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행이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담심의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어요. 그 뒤에도 전담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력 구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부분을 예결위 결산 보고서를 쓸 때 예술단체에서 전문위원한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문제 제기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가지고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보고서에서는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이나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갖고 올 것이냐?” 라고 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안을 가져오겠다.” 라고 해서 일단 보고서 채택에서 빠진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동안 비상임위원과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비상임위원과 협의를 하면 어떤 부분을 협의합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협의를 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높이지 마시고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협의를 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제가 회의에만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에 울림증이 있어서 회의가 끝나면 제가 그다음 날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기조팀에서 국회는 대응하고 있는 거죠. 공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산결산위원회니까 우리 위원회는 예산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굉장히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설명으로 일부 현장예술인들이 국회 문체위 의원님이나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결과로 이런 권고안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제 말씀이 끝나고 하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곡해가 자꾸만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 말씀이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만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요. 끝나고 통합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는 비상임위원으로 전담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네 가지의 구체적인 것을 적시해서, 물론 전문위원께서 판단하실 때는 다양하게 요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저는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장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를 권고했을 때 비상임위원으로 전담심의에 참여한 당사자인 저로서는 굉장한 개입 내지는 겁박으로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심정은요. 그러면 국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인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민간자율기구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예술인들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정말 최적화된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일반 예술인과 현장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문예위의 운영방식이나 심의방식이 결정되어야지 예산결산위의 전문위원이 네 가지에 대해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문예위의 존립, 그다음에 비상임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 전문위원님께서 곡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 전문위원님과 면담을 기조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국회가 지금 보면 예산국회를 따로 다루고 결산국회를 따로 다루고 그 기간에 대한 감사를 따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국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결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도 보고 예산정책처도 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보면서 말하자면 지적사항을 하는 겁니다. 사무처의 대응은 새롭게 뭔가를 해서 했다는 대응이 아니라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임위든 예결위든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라” 특별히 더 나가서는 징계까지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가 뭘 했느냐?” 라

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향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들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숙 위원 : 처장님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정정을 요청드리는데요. “사무처가 뭘 했냐?” 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비상임위원과 공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지금 공유 아십니까? 진행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왜 두고 일을 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 대응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고서 채택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떻게 일일이 그 과정을 보고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도 위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을 얘기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권한이 있고 그것은 위원장을 무시한 겁니다. 위원장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있고 내 책임이 있고 저도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좀 차분하게, 제가 위원장님께서 일을 안 하셨다고 하지 않았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가 속기록으로 남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의 발언을 나중에 복기해서 보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일을 안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수시로 보고를 했고,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했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도 그게 채택되는 것을 빼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절차 과정을 지금 밝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위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다 보고해 달라는 겁니까? 그럼 위원장이 왜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김진각 위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진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각 위원 : 국회 전문위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전문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이 독립기구에 대한 간섭으로 비취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의 전담심의제 특히 비상임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참여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논란들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엮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참여 문제를 이대로 갖고 갈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몇 가지 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낸 안을 가지고 사무처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무처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과 공유를 안 하는 내용들도 많을 것이고요. 비상임위원들의 심의 참여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을 테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효율적이고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음 주까지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무처에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또 보내드리고 의견을 듣고요. 그것을 서너 차례 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9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서도 납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계속 국회 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이 쓴 것은 전문위원이 쓴 게 아니고요. 보좌진들이 보고서에 이것을 채택해 달라고 자료를 냅니다. 전부 다 의원별로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예결위 위원장과 협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안이 채택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 민간기구. 국회는 민간기구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문제제기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다 인식하셨겠지만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기록에 남는다고 하시니까 기록에 조금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로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공유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고로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사무처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도 그만큼 애를 쓰셨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고를 한 것이고요.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고 이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니 저는 충분히 공유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기록에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자견일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높거나 위협적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회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제 됐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다른 겁니다. 회의자료와 관련된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요?

성기숙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각자 느끼는 게 다른 건데요. 저는 위원장님과의 회의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죄송하고요.

성기숙 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현장 장르의 대표성을 띠고 왔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여당도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여론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는 대표성을 띠고 장르에서 왔기 때문에 현장의 여론수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 여론의 전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현장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이 있

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체계와 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어제는 공연예술 분야였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고 어제는 서승미 위원님과 왕치선 위원님도 오셨고요. 저는 공연예술 무용분야의 참여를 해서 제가 패널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끝나고도 그렇고 여론이 어떠냐 하면, 시점적으로 8월 말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9월 내지는 10월이면 2026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공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2026년 정시공모 지원체계나 심의방식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공청회여야 하는데 문학이나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를 주제로 했고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저한테도 “2026년 지원방식과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오는데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의 이야기를 이왕이면 충분히 수렴해서 세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더 붙여서 어제와 그제 공청회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흔적도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번 공청회는 작년과 제작년 현장업무보고, 공청회. 또 지난해 현장업무보고, 공청회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 모든 사업들도 설계가 다시 되었고 심사방법도 설계가 다시 되었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미 똑같은 것으로 했고 변동된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들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새롭게 시행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런 저런 찬반 의견들이 있고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현안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보고하는 것은 생각을 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보다 보니까 실무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논쟁이 될 만한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공청회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타당하다고 해서 저는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승미 위원 : 기타 의견이기는 한데요. 문예기금지원사업 공모 총괄표를 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개개인이 장르의 대표성을 띠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지난주었나요? 전통예술 쪽 공연예술 라운드테이블을 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공청한 가운데 창작주체에서 공연비평에 대한 의견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공연비평을 심의 내용 자체가 그 안에 소속되면 5년간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통예술 같은 경우에는 비평의 경우 작년에 신청건수가 1건이었는데 그 이유를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평활성화는 저희 전통예술 쪽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 생태계 자체 안에서 비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한시적으로만요. 그런 걸 저는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창호 부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사업들 중에서 현장의 비평과 관련해서 전통예술 분야의 할 사람이 없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프로젝트로 제안을 해서 연구과제로 준다가거나 해서 양성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 5년 정도의 자격요건에서 “전통예술은 예외로 한다.” 라고 공모가 나가는 방법. 아니면 공모는 큰 틀을 흔들지 않고 그

대로 나가면서 갖고 있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일반수용비 등을 활용해서 기획프로젝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연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서승미 위원님과 협의를 하세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기숙 위원 : 지금 서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평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전담심의에 창작주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통합심의로 했습니다. 각 장르에서 2명씩 해서 통합심의로 이루어졌는데요. 저도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무용분야는.....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무처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신다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있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 공유를 잠깐 드리면, 일단 중복지원, 다중지원에 있어서.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다 아니까요.

성기숙 위원 : 1개 단체가 1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지금 서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작주체인데요. 창작주체의 창작지원, 공간지원, 공연비평지원 등 3개가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신청자가 같음에도 동일주체인데 이것을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었고요. 굉장히 고심해서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무용콩쿠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년도 정서공모가 이루어질 것인데 서면 결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년도 심의체계와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게 지원액이 가장 많은 것이죠. 다년지원과 문예위 지정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원총괄팀과 공연예술팀이 같이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르별로 사업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당 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줌회이나 임시회의든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꺼려했는데요. 서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대하고는 아주 밀접한 장르는 아닙니다. 무대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극장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작산실 등을 보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연극 쪽이 워낙 많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공고문이 만들어졌고 저희는 그것에 끼워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 같은 것을 쇼케이스할 때 20명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꼭 20명이나?”, “현장에서는 10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데 창의적이라면서 왜 그것을 제한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을 하세요.

왕치선 위원 : 그리고 쇼케이스 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뭐냐 하면 다른 것들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왕치선 위원 :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실은 관리자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관리자 중심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왕치선 위원 : 장르를 고려하려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공고문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야 말로 행정편의적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장르별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없습니다. 지금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작산실을 얘기하신 거죠?

왕치선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장르별 특성을 살려서 이것은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해서 공고할 때 장르별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치선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전통예술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장르들이 있고 전통예술 쪽에서 저보고 여쭙봐 달라는 게 있어서요. 어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주제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통예술 부분의 K-아트 크리에이티브에서 동편제 국악축제. 이게 2026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K-아트 크리에이티브가 저희 한예중 자회사로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된 것을 보니까 보통 6,000만 원,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2억 원으로 최대금액으로 지원이 된 사업이고 최근에 사업변경신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2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관련해서 지원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쭙봐 달라고 해서요. 이게 어떤 것을 갖고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K-아트 크리에이티브가 한예중. 아시다시피 우리는 문체부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속해 있는 것이고 직원채용도 국가 공무원법에 준해서 채용하고 있어서 공적인 영역의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예술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에 트랙을 달리 했으면 했는데 같이 경쟁하는 구조로 들어왔고요. 기존 실적이 없이 신규로 지원이 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우리 서승미 위원님께서 전통분야의 비상임 위원이시고 심의는 아마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의결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일단 심의를 하신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K-아트 크리에이티브는 말씀하신 대로 한예종 밑의 자회사인데요. 그 자체의 성격만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 자격조건에는 문제가 안 되었고요. 남원에서 하는 동편제는 기존에 민간 쪽에서 계속 지원을 받다가 뭔가 지원부분에서 여의치가 않았고 문예기금의 전통예술 분야로 신청했고요. 제가 알기로 5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원심의회에서 이 부분의 금액은 과하고 3일 동안 5개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정도면 2억 원 정도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게 민간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아니고 정몽구 재단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원 행사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같이 경쟁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민간하고 공공 영역에 있는 게 같이 경쟁, 아까 말씀처럼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저는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가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참여하셨던 심의위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행사 자체가 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보는 게 행사의 취지나 규모, 대한민국공연예술제로서 कै과를 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들으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건은 중요한 대목이라 추후 논의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113쪽을 보면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심의위원회 후보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담심의 적용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잖아요. 제가 2026년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무용 분야의 전담심의 위원들은 기존에는 사무처와 해당 분야의 비상임위원이 1~1.5배수로 추천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전부 선정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성기숙 위원 : 아닌거죠?

정병국 위원장 : 성기숙 위원님.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성기숙 위원 : 초안이니까 초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하시자고요.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정병국 위원장 : 막는 게 아니라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발언을 막지 마세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는데 자꾸만 들고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죠? 그것은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또 나오면.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이러시는 게 굉장히 겁박으로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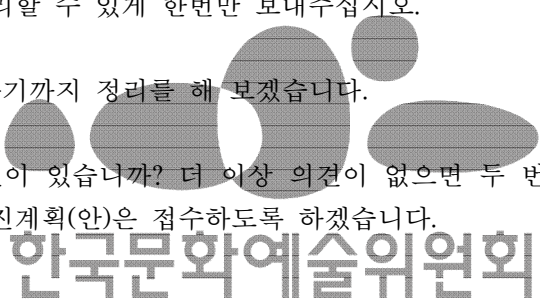
김미라 위원 : 성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이 겁박을 하신다기 보다도 성 위원님이 지금 진행하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진행에 대한 것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안을 두세 차례 걸쳐서 우리가 논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끝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도 될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어느 위원님도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겁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승미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말씀인데요. 2025년도 지원사업 일정에 대해 12월까지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9월 한 달의 계획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 표를 한번 보고 조금 정리할 수 있게 한번만 보내주십시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4분기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두 번째 보고안건인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안)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 정부(안)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이미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되어서 정부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지출한도에 대한 감액을 요구 받았고 모든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응 과정에서 우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증액사업들을 설득했고 정부안에 최종적으로는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문예기금 정부안 주요 결과 세부 내역이 쪽 나오는데 다음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사업비 총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술창작지원은 전년대비 5.8%, 예술인력육성은 6.9%,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은 5.1%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재 복지재단으로 재교부되고 있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 큰 폭으로 증액된 면이 있고요. 예술산업금융지원은 신규로 반영돼서 200억 원이 편성되었고 본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재교부되어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은 수입·지출계획 총괄표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사업비 주요 증액사항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 신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지원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창작지원은 5.8%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문학분야에서는 문학창작산실의 장편트랙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현재 소설의 경우에는 단편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문학창작산실에 실제 독자들에게 소비되거나 특히 해외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 장편소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새롭게 장편소설 트랙을 신설해서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문학주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서울에만 운영되고 있는 문학주간을 전국단위 문학축제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로 문학주간에 추가로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어서 총 9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육성에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에 현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의 약 150개 소극장 대상으로 무대기술을 지원하는 무대기술119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해서 3억 원 증액 편성을 받았고요. 2009년에 개관해서 운영 중인 대학로예술극장에 대한 시설이 1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사용연한이 초과된 상황에서 수리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30억 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글로벌창작역량네트워크강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27.3% 증액이 돼서 타 내역사업 대비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글로벌네트워크강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여 년째 운영지원금액이, 증액편성이 안 되고 있었던 베니스비엔날레 운영지원 예산 4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요. 올해 문화예술세계총회 이후에 해외의 주요 기관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문화기관협력 예산도 올해 대비 3억 9,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기존 아웃바운드 중심에서 해외예술가가 국내에 들어와서 창작하는 형태로 국내 예술가들과 네트워크하고 협업하는 형태의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를 위해서 올해는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바운드 국제협력강화를 10억 원 증액 편성해서 최종 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창작공간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 134개소에 운영 중인 문학창작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0억 원 추가 편성해서 총 2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창작공간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올해 60억 원 중에 대관료지원 사업으로 25억 원 정도 편성된 것에서 추가 20억 원이 편성돼서 대관료지원 사업으로만 50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력육성입니다.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도 총예산 기준으로는 6.9%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4년차 개최되고 있는 APE캠프가 좀 크게 확대돼서 올해 5억 원 규모로 하고 있는 예산을 10억 원 증액편성을 해서 15억 원으로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창작자들과 해외의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예술가들이 공동 협업하는 것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40억 원 규모로 수행 중인데 예비예술인의 경험 확장 특히 최근에 AI 등의 기술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 해당 내용으로 19억 원 증액 편성해서 내년에는 59억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현장예술인력육성 아래에 예술인력교육플랫폼이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 2020년 이후 계속 운영 중이었다가 올해 예산에 미반영 돼서 자칫 폐지 또는 타 시스템과의 통합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에 예산이 복원돼서 5억 원 편성을 받았습니다.

다음 예술인인생활안전자금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수행 중인데 지금 정책에 따라서 올해 180억에서 내년도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된 28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의관광자원화입니다.

예술의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재교부성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감액해서 총괄적으로는 8.1% 감액된 45억 2,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의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맨 아래에 보시면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는 예술기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아카이브와 예술기록물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디지털아카이브로 운영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관리하고 AI까지 접목한 큐레이션과 데이터 시각화 및 미디어자산관리 아카이브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15억 증액편성 받아서 올해 대비 44.6%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향유지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올해 14만 원에서 내년도 15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서 올해 대비 299억 원 증액편성이 되었고 청년문화예술패스도 현재 19세에서 연령대 확대, 사용처 확대 기조에 따라서 191억 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2026년 기금운용 계획정부안 편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쪽 보고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총평은 잠재력은 있었으나 굉장히 시작단계에서 아쉬웠던 APE캠프라든가 베니스비엔날레라든가 인바운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잠재력도 인정받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측면에서 감사드립니다.

시각다원 쪽에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없었던 사업 중에 있는 게 있는데 컬렉션 및 전시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더라고요. 시각예술창작육성사업 중에서 작품컬렉션 및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이 부처안으로, 이것은 부처안으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군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맞습니다.

김미라 위원 : 죄송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팀장님, 2025년 대비 2026년에 문예위 전체예산의 증액이 얼마일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전체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9.3%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837억 8,400만 원입니다.

성기숙 위원 : 전체적으로 문체부도 물론이고 소속기관별로 20% 정도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

고요. 그래서 문체부 문화예술 예산은 굉장히 선방된 것뿐만 아니라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감사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122쪽에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에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문예위 지원사업이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강점이라고 보는데요. 신진, 중진, 원로세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확산에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좋은 건데요. 문학 쪽만 있어서 다른 장르는, 물론 원로공연예술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가치확산에 문예인복지지원만 딱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이 사업은 예전에 문화예술진흥원 시절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생계가 어려운 원로예술인들의 생계비지원 사업이고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모든 장르가 다 있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모든 장르가 다 있었습니다. 모든 장르가 다 있었는데 작고하시면 점점 줄어드니까 현재는 5인이 남으신 상태입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이 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을 하다가 그 당시 기재부로부터 이 사업은 복지지원 그러니까 생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지원 사업이고 예술위원회 보다는 원래 복지재단 등에서 하는 게 적당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 당시 일몰제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면 사업을 접겠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5인이 생존하셔서 더 늘리지 않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일몰제면 자동으로 작고하시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로 일괄적으로 가겠네요.

이한신 : 그렇습니다. 이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기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구문모 위원 :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아르코예술기록원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기관에서 텍스트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예술기록원을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쪽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성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AI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행을 할 거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사업이 증액도 되었으니까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기록원과 얘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건은 경영전략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이번 회의안건은 환경변화.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국정과제(안)을 공개했는데 그것을 일부 반영해서 사무처에서 아르크중장기전략 초안을 작성했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비전은 건드리지 않고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과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새정부의 국정과제 문화예술 쪽을 보면 콘텐츠 중심, 문화사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보면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위원회 중장기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라든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나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역할 강화 그리고 문화재정확충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한번 보면 청년예술인지원확대나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강화 그다음에 그것과 연장선에서 NCAS 활용을 강화하는 문제들 그리고 문예기금재원안정화 관련 내용들도 중장기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전소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전략목표, 전략과제를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르크, 예술위원회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예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는데 자율성이 보장된 기구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전략목표, 전략과제들이 지금의 예술위원회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122쪽의 전략목표4에 나와 있는 선진형 예술위원회 경영모델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술위원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서 향후 경전소위 때 논의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김진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전소위에서 고생하셨고 다 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예전에도 제안을 했던 건데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 2005년에 진흥원 시절에서 위원회로 전화된지 20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진각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관 정체성이나 역할 부분에 대해서 20주년. 물론 산술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20주년 기념세미나나 포럼을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안 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남았으니까 우리가 과거도 한번 진단해 보고 향후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를 하시죠.

정갑영 위원 : 작년에 백서가 나올 때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진각 위원 : 문예진흥원 시절까지 합치면 50년이 넘었지만 지금의 기구는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도 있고 20년만 갖고 따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보고안건은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회의안건을 보시면 기업 문화력 지수 개발 및 실증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아까 회의 때 얘기했던 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결과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르코웹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업 문화력 지수 개발 및 실증 연구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기초연구가 있을 때 김진각 위원님이 소위원장이셨을 때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기업의 후원을 하는 것을 측정했을 경우 우려되는 부정적인 얘기를 논의했었는데요. 두 번째 사업이 전년도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다행히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저희들이 공유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책임자하고 우리 소위원회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가 우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넘어갈 지역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은 약간 설명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잔여예산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같은 경우 잔여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 잔여예산이 생길 일이 없을 테니까 이것을 정례화 시키는 게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재단이 매개가 돼서 일을 하는데 매개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것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코웹진 같은 경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답을 내용도 그렇고 특히 홍보하는 문제, 그 전에 아르코웹진도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파급효과가 적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글에 나왔듯이 슷츠, 카드뉴스 특히 SNS 채널을 많이 활용하자. 그리고 웹진에 답을 주제들을 기획할 때 에디터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정병국 위원장 :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도 되는데 순서대로 진행만 되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구문모 소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구문모 위원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사무처 관계자가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르코웹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내용과 질이 두툼하고 문화예술정책뿐만 아니라 각 장르의, 논문을 쓸 때 참고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글들이 많이 실렸거든요. 그런데 웹진 형태로 나오는데 128쪽에 안전별 주요 내용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웹진의 편집진 구성, 필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승 예술후원홍보센터장 : 기존 아르코웹진은 편집위원회 체제였고요. 올 초부터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없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보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구문모 위원님 보고 내용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의 매개 없이 지역 기업과 지역 예술단체 간 직접 교류를 맺는 것도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지역문화재단을 매개로 하자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예술단체들이 직접 맺어서 오는 케이스가 몇 개나 있을까? 그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바로 다음부터라도 저는 이것을 푸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심사를 해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도록 여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게 얼마나 후원을 맺어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향후 오픈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2025년 9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위원회에 공유할 게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용계의 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에 들어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의 창무국제예술제가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준비 리허설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중상과 경상을 입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게 발생되었으니까 우리 문예위 차원에서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과 전략,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위과악이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공유가 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세종예술의전당입니다. 협력 공간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무용수 2명이 추락한 사고가 되었고요. 그다음 날에도 국립무용단이 밀양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르코예술극장이나 우리 창작주체에서는 사업을 할 때 공연장 안전과 관련한 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 관련한 보험도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작주체나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지원할 때는 그런 안전조건들에 대해서 더 교육이나 조건에 있어서 강화 등을 더 준비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현황과악도 했고요. 중상을 입은 여성 무용수는 평생 무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

래서 무용단을 운영했던 주체나 세종시 문화회관 측이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족들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류재수 본부장님이 밀양에서 국립무용단. 바로 그다음 날이 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용계는 굉장한 충격,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빨리 쾌유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용수로서 정상적인 것은 미지수라는 진단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후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나 보험가입 유무 등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서 선제적으로 향후 지원신청을 받을 때 면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10여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안 되었던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이 용역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8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체부에서 7건인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것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했고 극장 측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위의 숙원 중에 하나를 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은 2025년 9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9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9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회의 종료)